

추도사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화사한 꽃이 봄소식을 전해오건만, 천진하게 웃던 얼굴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메어지는 봄입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는 충격과 슬픔으로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단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랐던 실종자들의 귀환도 간절한 희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길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많은 장벽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여전히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은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마음을 남들에게 향하다”라는 회자향타(廻自向他)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했으나 마음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각계가 모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종단 역시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팽목향의 눈물이 이 땅을 지나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질러 광화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발 벗고 나선 뜻 깊은 사람들과 함께 1

년여 동안 차가운 거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세월호의 참사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몸과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1년의 고통과도 같았을 것이기에, 어떠한 위안과 격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선으로 존중하여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희생자 영가들이시여,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아파했으며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들이 잊지 않고 바뀌 나가겠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겪었던 아픔, 슬픔, 분노는 모두 놓으시고, 행복하고 향기 가득한 세상에 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그라졌지만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모두는 인연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아니했으니 좋은 인연 간직하시고, 무거운 짐 모두 벗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왕생하소서.

불기2559년 4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